

해외카드 결제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 Q** 해외 Global Agency인 A사에서 저희 회사로 카드결제를 통해 대납을 하고 A사에서 B사로 대금 청구를 하는 절차입니다.
B사에서 저희 회사로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을 하였습니다.
부가세 신고시 카드결제건에 대해 카드 매출에서 제외하고 세금계산서 매출로 조정하면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 A** 카드매출건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면 카드매출 제외후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며, 추후 세무서 등에서 소명요청해오면 중복매출사실을 소명하면 됩니다.

퇴직소득 세액 계산시 근속연수 관련 질의

- Q** 퇴직소득 세액 계산시 근속연수 관련 질의 드립니다.
81.03.01~84.02.28까지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84.03.01에 정규직 전환이 되어 사학연금 가입이 된 직원이 23.02.28에 퇴직했을 때
정규직 재직 기간동안의 퇴직금은 사학연금에서 받기 때문에 상관이 없으나,
계약직으로 근무했던 과거 3년의 기간에 대해 퇴직금 지급 의무가 생긴 경우 근속연수를 81.03.01~23.02.28로 봐야하나요?
아니면 81.03.01~84.02.28로 봐야하나요? 노무법인에 퇴직금액 산정방법에 대해 문의해보니 퇴직금은 근로자가 실제 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해야한다 하여 최근 3개월치의 정규직 급여 금액으로 산정했습니다.
허나 근속연수는 3년(계약직 근무기간), 42년(계약직+정규직 근무기간), 39년(정규직 근무기간) 중 어떤 것으로 신고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 A** 정규직 전환 이전의 계약직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근속연수는 81.3부터 ~23.228일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이에 대한 유권해석 등이 없는바 보다 명확한 사항은 과세관청에 문의하시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전자문서로 전표 및 증빙 보관처리 중 반드시 원본으로 보관해야 하는 경우

Q 당사는 현재 회계전표 작성부터 해당 증빙 등을 전자로 보관 중입니다.
법에 따라, 작성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하는 장부와 서류는 그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되어 있는 원본을 보존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자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가능한 경우, 원본 또한 전자문서일 경우 전자 보관이 가능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실제 날인하거나 서명하는 계약서, 인감대장 등 외에
반드시 원본을 보관해야 하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는지, 현업에서 놓치기 쉬운 경우는 어떤 것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A 최초부터 전산조직으로 작성되는 장부나 증빙서류는 전자장부나 증빙이 원본으로 인정되지만, 원본이 종이서류 등으로 작성된 이후 이를 스캔등으로 전자적으로 변환하는 경우는 종이원본을 보관하여야 합니다.

다음의 국세기본법 통칙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국세기본법 통칙 85의3-0...1(전자기록 등에 의한 장부 등의 보존)

법 제8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영 제65조의7 및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전자기록의 보존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하는 다음의 경우 실물을 보관하지 않을 수 있다.

1. 당초부터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를 생산한 경우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신용카드 거래정보를 전송받아 보관하는 경우

주식선택권

Q 비상장으로 주식선택권을 부여하는데 7월에 발생하여 주식선택권 평가를 받았습니
다
11월에 한번더 발생할 경우 발생분에 대하여 주식선택권 평가를 받아야 하는지 2월에 받은 평가 금액으로 주식보상비용을 잡아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A 주식매수선택권의 발생시점의 평가금액으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11월 발행분에 대해 11월평가 금액으로 주식보상비용을 잡는 것이 타당합니다.